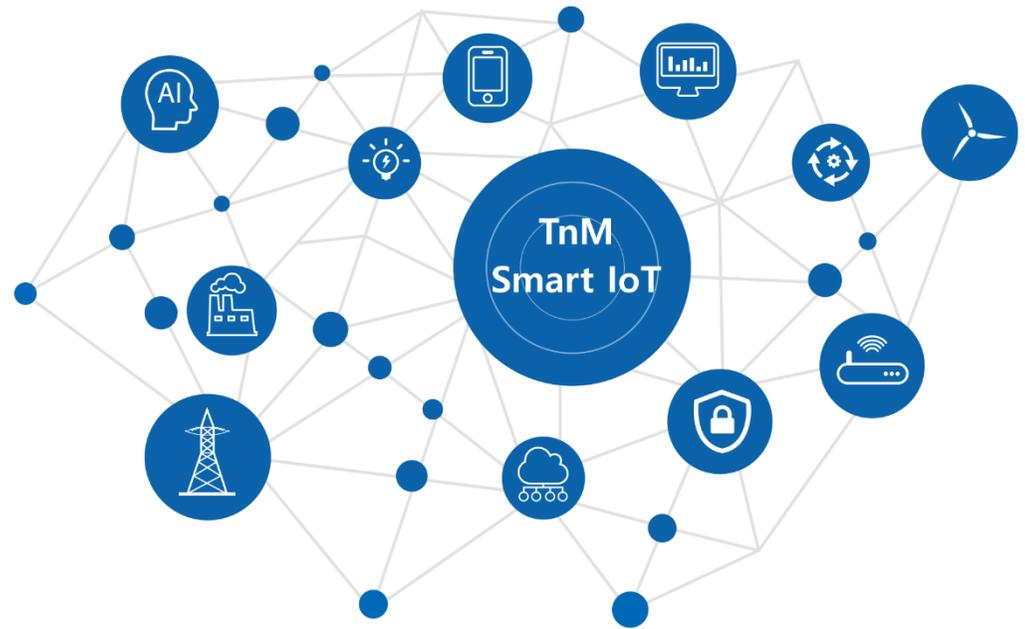


TnM Tech 회사소개서



Contents



회사소개

- 1 회사개요
- 2 사업분야
- 3 회사연혁
- 4 조직구성
- 5 특허현황



사업 및 실적 소개

- 1 점포용 IoT 시설물·에너지 관제 솔루션
- 2 전력산업용 IT 플랫폼 개발 사업
- 3 분산형 AI 기반 영상 분석 사업
4. 정부과제 R&D

01 회사개요

상호	(주)티앤엠테크 www.tnmtech.com		CLIP기업신용등급
대표자	황의석 이학박사		BB-
설립년월	2009년 5월		
사업장	[본사]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31 한국페인트잉크회관 3층 [나주지사]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산단 소재 [여수광양지사]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자본금	4억원	전체 임직원수	33명
매출액	2018년	2019년	2020년
	26억원	46억원	56억원
사업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형 IoT 기술분야 ▪ 전력시설 통합관제/서비스 처리 기술분야 ▪ 분산형 AI기반 영상 데이터 처리 기술분야 		

자격 및 인증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인증 (2017) •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2021) • 벤처기업 인증 (2021) • 국가R&D 우수성과 표창 (2016,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국가R&D 우수성과 포상 (202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중소기업직접생산증명 •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 CCTV 영상AI KISA 인증 • 에너지게이트웨이 KC인증 • NICE Alliance Part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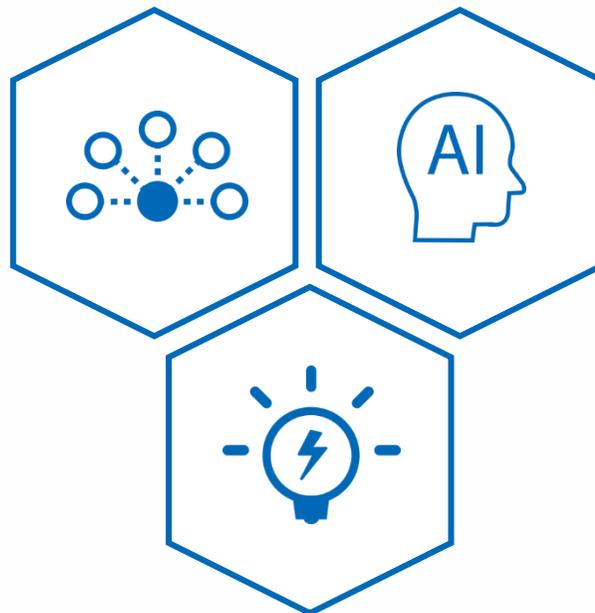
02 사업분야

회사소개

점포용 IoT 기술분야

- 매장내 주요 설비 모니터링
- 실내/외 환경정보 수집
- 이상감지 및 유지보수 연계
- 에너지 사용 모니터링
- 계약전력추천 및 피크제어
- 간판/조명 및 냉난방설비 제어 등

**“설비 원격 관제 및
무인편의점 구축 솔루션”**



분산형 AI기반 영상 데이터 처리 기술분야

- 침입, 배회, 싸움 등 주요 제스처 인지
- 빌딩 경비업무 대체/보조
- 보안업무 대체/보조
- 실시간 영상분석 및 알람
- 관제센터 연계 API
- A.I.학습 및 공유/재판매

**“CCTV 지능화 솔루션 및
영상분석 A.I.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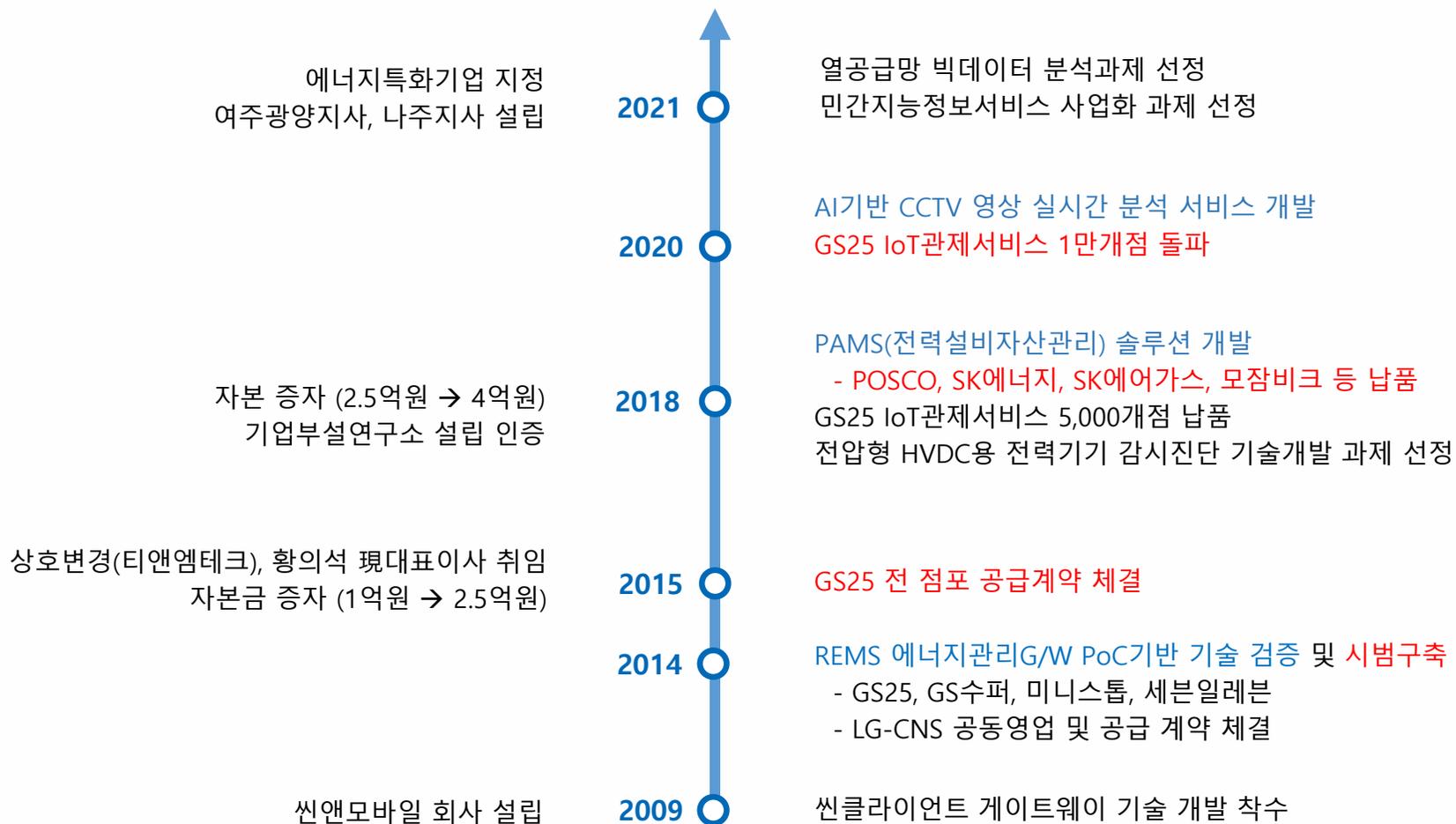
전력시설 통합관제 및 서비스처리 기술분야

- 초고압변전소 전력설비 수명기반 관리/모니터링
- SCADA, PD, DGA등 운영 및 예방진단용 온라인 데이터 수집
- 점검 및 유지보수 정보 기반 이력화
- 설비 수명예측 및 전력계통에 따른 고장율, 위험도 분석
- 설비별 건전도 및 수명 평가

**“수명모델 및 건전도 기반의
전력설비 자산관리 솔루션”**

03 회사연혁

회사소개



· 실적 · 개발

04 조직 및 인력현황



05 특허현황

회사소개

국내특허



계약 전력 추천 장치 및 방법



계약 전력 추천 장치 및 방법



소매점 에너지 관리에 위한 장치 및 방법



에너지 관리 장치 및 방법



인공지능을 이용한 영상 데이터 중계 방법, 장치 및 컴퓨터 프로그램

해외특허



소매점 에너지 관리를 위한 장치 및 방법 (일본)

출원 중

- 10-2020-0078214 모듈화된 인공지능 모델 플랫폼 서비스 제공 방법, 장치 및 컴퓨터 프로그램
- 10-2020-0078215 인공지능을 이용한 CCTV 영상 데이터 중계방법
- 10-2020-0078216 인공지능 모듈 플랫폼 서비스 제공 방법



사업소개

1. IoT기반 에너지 관제 솔루션
2. 전력산업용 IT 플랫폼 개발 사업
3. 분산형 AI 기반 영상 분석 사업
4. 정부과제 R&D

1-1 REMS 개요 - IoT 기반 시설물 통합 관제 솔루션

■ 소형 점포의 냉난방설비, 냉장기기, 간판, 조명 및 온습도 등 실내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과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및 원격 제어가 가능한 IoT 기반의 원격 시설물 통합 관제용 솔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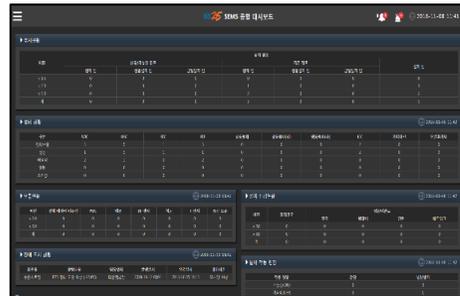
- 설비상태 및 환경 모니터링 (하단 그림의 센서 참조)
- 클라우드 기반 통합 관제 및 이상발생 알람, 유지보수 연계
- 계약전력 추천 및 피크부하 관리를 통한 에너지 절감
- 관리 권한별 관제 대시보드 및 모바일 앱



1-2 REMS 특징점 - 통합관제 어플리케이션

- 사용자 권한별 차별화된 관리 어플리케이션 및 관리 목적별 대시보드
 - 통합관리자 및 관제센터, 점포경영주, REMS설치기사, 냉설비 AS기사 등 구분
 - 통합관리자 : 전국 설치현황 관리, 전체 시설물 상태 관리, 실시간 알람 관리
 - 점포경영주 : 자기 점포 상태 모니터링, 냉난방기 원격 제어
 - REMS설치기사 : 게이트웨이/센서 무선 기반 정보조회 및 Install/Configuration
 - 냉설비AS기사 : 냉장/냉동고 이상 발생시 알람 수신, 점포 설비상태 확인, 조치사항 등록
 - 점포별 에너지 사용 및 설비 상태 모니터링
 - 전국 실시간 점포 운영현황
 - 알람/고장 이력 조회, 처리결과 관리 및 리포트

WEB Dashboard



Mobile Appl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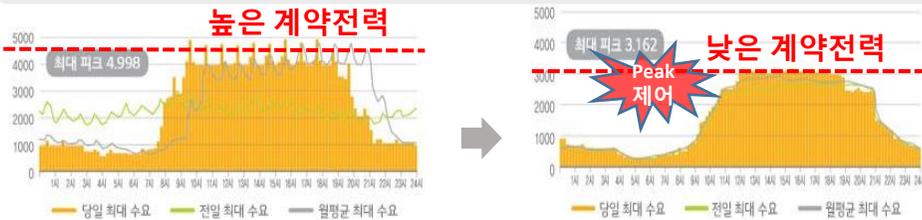


1-3 REMS 특징점 - 에너지 절감 기술

■ 소매점 계약전력 추천 알고리즘 및 피크부하 제어 기술 (특허 보유)

고객사 전기세 절감 요구 + 빅데이터 처리 기술

1. 계약전력 추천 알고리즘
2. 실시간 전력 피크제어



점포명	계약전력	피크치	피크제어	전력사용량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요금계	증감
가현로드점	26	27.5	피크제어 O	5,935	160,160	547,800	801,760	-48,125
			피크제어 X	6,146	183,260	567,260	849,885	
시흥문화마을로점	27	28.2	피크제어 O	12,119	166,320	547,800	1,457,670	-57,797
			피크제어 X	12,472	184,800	567,260	1,515,468	

매장당 연 평균 약 60만원 전기요금 절감

■ 계약전력 추천 알고리즘 도입 배경

- 기존에 높은 계약전력을 사용하고 있던 이유는 날씨 변화와 같은 급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한 전기 수요에 따른 누진세를 방지하기 위함.
- 자사의 빅데이터 분석 처리를 통해 계약전력 최적화 지점을 제공하여 에너지 절감 실현.

■ 계약전력 추천 알고리즘

- 신규(기존) 점포의 전력사용량과 월간 전력 사용 패턴을 분석 → 타 점포/ 계절/ 지역 등 빅데이터 분석 및 비교 → 매장 별 최적의 계약전력을 추천
- 실시간 전력 피크제어를 통해 안정적으로 낮은 추천 계약전력으로 매장 운영이 가능

1-4 REMS 사업실적 - GS리테일(SEMS)

뉴데일리경제

Reference 뉴데일리경제, 2021.03.18

GS25, 에너지절감 시스템 'SEMS' 1만개점 구축 완료

에너지 절감 활동 통해 ESG 경영 가속화, 현재까지 150억원 투자, 1만개 점포 에너지 절감 시스템 구축
2025년까지 연 70억원, 누적 400억원 이상 절감 예상



GS25가 프랜차이즈 소매업계 최초로 1만개점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SEMS)를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환경을 위한 경영 활동 전개, 사회적 에너지 절감 활동에 동참하며 ESG경영의 한 축인 환경(Environment) 경영을 적극 펼칠 수 있게 됐다 는 설명이다.

GS25는 점포 운영의 필수 비용인 전기료 절감 활동 및 사회가 요구하는 에너지 절감, 효율화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SEMS를 2015년 SEMS를 최초 도입했다. 초기 300여 점포를 시작으로 전 점포 확대를 목표로 진행해, 2021년 3월 현재 약 1만500여 점포에 설치, 운영 중으로 2025년까지 전 점포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SEMS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은 약 150억원이다. 편의점 GS25가 1만개 점포에 구축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국내 최초이자,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든 대단한 성과로 평가 된다.

GS25가 운영하고 있는 SEMS로 인해 2020년까지 누적 에너지 절감 금액은 약 120억원이며, 점포당 전기료는 본격적으로 설치를 시작한 2017년 대비 현재 월평균 약 10% 절감됐다. 하동절기 최대피크타임 사용량 관리 및 불필요한 사용량 축소, 효율적인 원격 제어 등을 통해 사용 전력량을 감소로 비용 절감의 효과가 발생 한 것.



사업소개

1. IoT기반 에너지 관제 솔루션
- 2. 전력산업용 IT 플랫폼 개발 사업**
3. 분산형 AI 기반 영상 분석 사업
4. 정부과제 R&D

2-1 AHMS 개요 – 변전소 전력설비 자산관리 솔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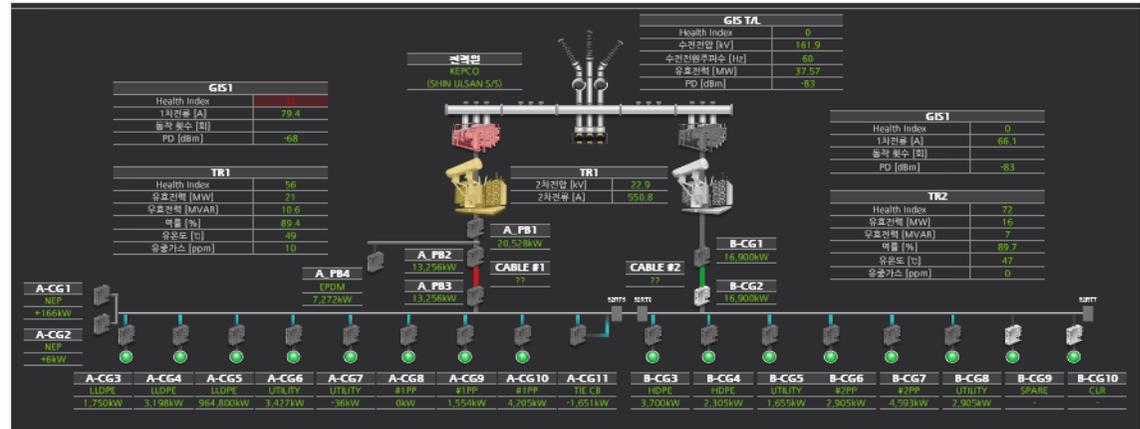
- 변전소내 초고압 변압기와 GIS 등의 전력 설비에 대한 수명주기 분석 기반의 자산관리 솔루션
 - Asset Health Management Solution
 - 22.9 ~ 170kV급 GIS, TR 및 배전설비 대상
 - 설비별 운전/진단/정비 및 점검 데이터 수집 (온라인 연계 및 오프라인 수집)
 - 설비 상태평가 및 AI 기반의 건전성 진단
 - 유지보수 이력 기반의 수명 평가 및 계통 신뢰도 진단
 - 고장율과 정전피해비용 데이터 기반의 최적 유지보수 계획 제시 (경제성우선, 신뢰성우선)



데이터연동/수집
SCADA, PD진단, 유증가스 분석, 오프라인 점검

변전소 #개
자산평가/관리
전 생애 기반 유지보수 진단 플랫폼

사용자 조회 Web / App



변전소 전력설비 및 계통 모니터링 현황

2-2 AHMS - 시스템 기능 구성

T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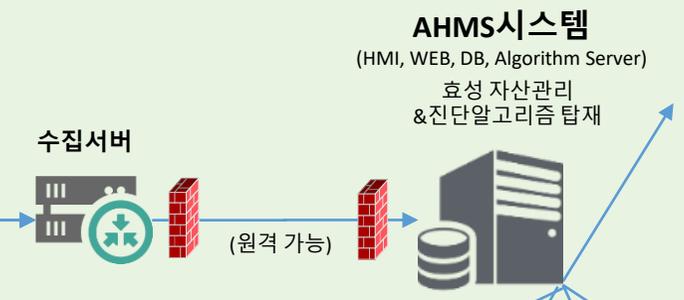


- 온라인 센서
- SCADA /DCS

GIS



- 온라인 센서
- SCADA /DCS



TR/GIS 상태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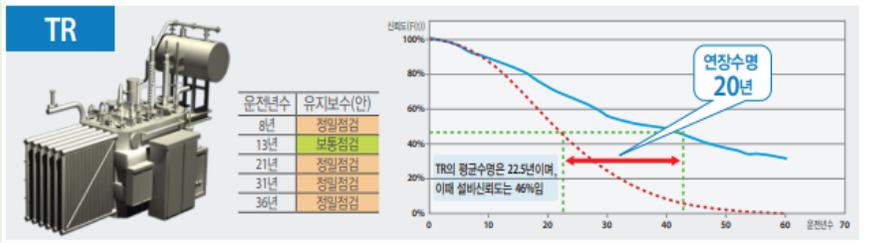
50여가지 평가항목과 제조사 보유데이터로 학습된 AI 기반 설비건전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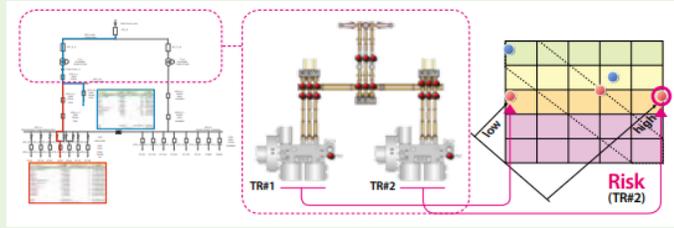
중단/정전 피해비용

Item	Model No.	TR	GIS	TR	GIS	TR	GIS	TR	GIS	TR	GIS	TR	GIS
Chapter 1	2019-01	General	SECURITY	General	PL	PL	400	20000	50	40000	50	40000	50
Chapter 2	2019-01	General	SECURITY	General	PL	PL	400	20000	50	40000	50	40000	50
Chapter 3	2019-01	General	SECURITY	General	PL	PL	400	20000	50	40000	50	40000	50
Chapter 4	2019-01	General	SECURITY	General	PL	PL	400	20000	50	40000	50	40000	50

고장률 및 유지보수 기반 수명모델 관리



계통신뢰도 분석 기반 최적의 유지보수스케줄 제공



시각화모니터링(Digital Twin)



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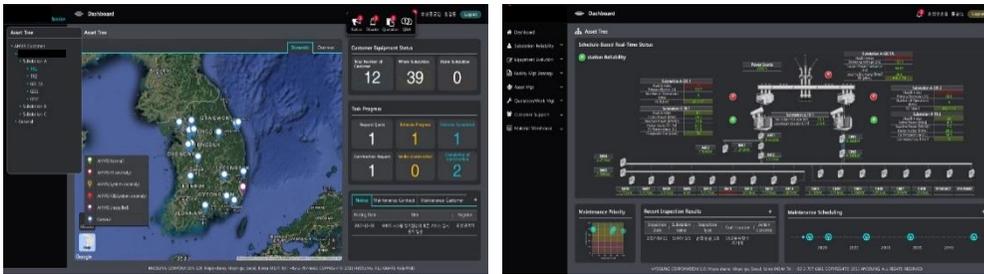
2028.03.26, 2019.08.12

2-3 AHMS 특장점 – 설비 진단 및 유지보수 계획 수립

설비 상태진단 및 수명모델



전제 시설물 통합 모니터링



유지보수 의사결정 지원



- **설비 건전도 (Health Index)**

 - 전기적/열적/화학적/기계적 위험도 및 절연물 열화, 운영환경 등 6개 진단분야 35개 평가항목 기반의 TR 상태진단.
 - 통전성능/차단성능/절연성능/기밀성능/운전이력/진동및소음 등 6개 진단분야 32개 평가항목 기반의 GIS 상태진단.
- **유지보수 의사결정 지원**

 - 변전소 운영 신뢰도 기준 또는 비용 기준에 따른 유지보수 전략 제시.
(변전소 신뢰도, 고장율, 연간공급지장전력량, 정전비용, 유지보수비용)
 - 변압기 사고/중단시 손실비용 예측.
 - 유지보수 예상 시기, 비용, 점검수준 (현상유지, 보통점검, 정밀점검, 교체)
- **자산정보 등록 관리**

 - 명판/스펙 정보, 서브시스템/부품 정보
 - 체크시트기반 점검 이력 관리
- **모니터링 / Trend / 레포트 / 알고리즘관리 등**

2-4 AMS 도입 효과

AHMS 도입시 주요 기대효과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설비상태 진단, 감시 및 고장예측

고장예측시 자동 알람기능 포함



최적의 유지보수 스케줄 제공

기기별 최적화된 일정, 비용, 방법에 의한 구체적인 스케줄 적용



전력설비 수명 연장

최적의 유지보수, 고장예측으로 인한 전력설비 수명 증가



전력설비 상태에 대한 실시간 리포팅 서비스 제공

전력설비에 대한 내부 의사결정시 참조자료로 활용



정전으로 인한 조업 피해비용 절감

설비고장에 따른 정전발생시 생산피해를 최소화 및 예방.

Ex) 정전피해비용 619억 ※100MVA 부하 8시간이상 정전시 기준
(출처: 한국전기연구원, 업종: 기타기계)

고장 Risk 비용 감소

- AM 시스템 미설치 시 : 20.5억 소비 (RISK 비용)

- AM 시스템 설치 시 : 3.7억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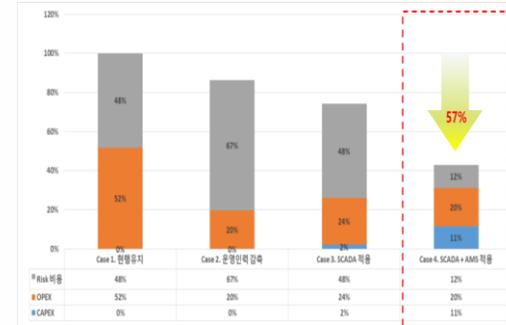
※ 16.8억/30년(단위변전소기준) 절감.

Ex) OO에너지 154kV 변전소 기준

관리 및 점검비용 절감

고객 자체적으로 설비의 생애주기 동안 설비에 대해 관리 및 점검 시 예상 발생 비용을 AM 시스템 통해 Totex 기준 약 57% 절감 비용으로 관리 가능

Ex) OO창원공장 22.9kV 변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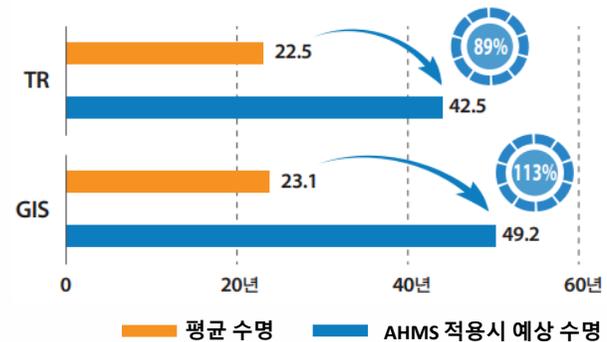


Risk 비용 : 설비 고장가능성에 따른 피해 비용

OPEX (Operating Expenditures) : 연간 유지보수 비용 + 인건비

CAPEX (Capital Expenditures) : 설비 투자 비용

TOTEX (Total Expenditures) : Risk 비용 + OPEX + CAPEX



*평균수명정의: 설비유지보수없이 첫 고장(Major Failure)이 발생하기까지 평균시간 (효성에 축적된 과거 Data를 분석하여 수명모델 산출)

2-5 상용화 실적

구축현황

- 변전소 자산 관리 솔루션(효성ARMOUR)
- 최초 구축 현황
 - SK 에너지 변전소 : 2018년 12월
- 시스템 구축 실적
 - 국내: 대기업 4개 변전소
 - 국외: 모잠비크 63개 변전소 통합관리



실적세부정보

2017	■ 전압형 HVDC용 변전소 감시진단 시스템 개발과제(~2023)
2018	■ 청주 SK에어가스 서비스형 변전소 관리 ■ 울산 SK 에너지 서비스형 변전소 관리
2019	■ 포스코 선강 변전소 관리(플랫폼 연계형) ■ 한국전력 변전소 관리 시범사업 3개소(영일/대송/서인천) ■ 모잠비크 전체 국가 변전망 관리 통합 구축(70개 전국 변전소)
2020	■ 울산 화력 발전소 Switch Yard 변전시설 관리 (구축형) ■ GS 칼텍스 여수 공장 신규 변전소 관리(구축형) ■ 가산 SK 브로드밴드 IDC 센터 변전시설 관리(구축형)
2021	■ AM-i 자산관리 알고리즘 고도화 사업

*서비스형: 효성 ITX IDC서버에 시스템 구축

*구축형: 고객사 서버에 시스템 구축

*플랫폼 연계형 : 고객사 플랫폼과 연계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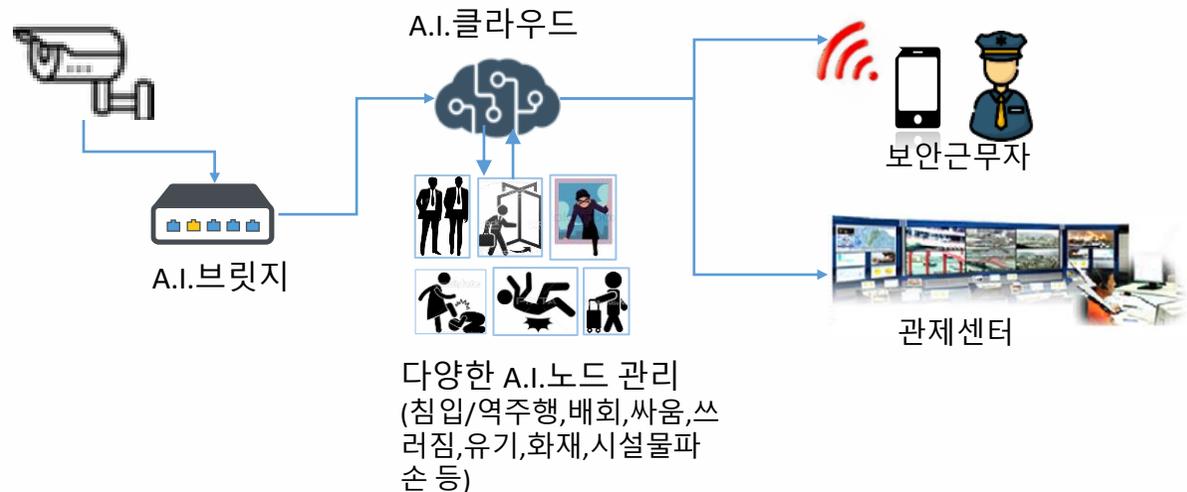
사업소개

1. IoT기반 에너지 관제 솔루션
2. 전력산업용 IT 플랫폼 개발 사업
- 3. 분산형 AI 기반 영상 분석 사업**
4. 정부과제 R&D

3-1 Ghost-i 개요 - CCTV/카메라 기반 분산형 AI 영상분석 솔루션

■ CCTV/Camera 기반 실시간의 분산형 AI 영상분석 솔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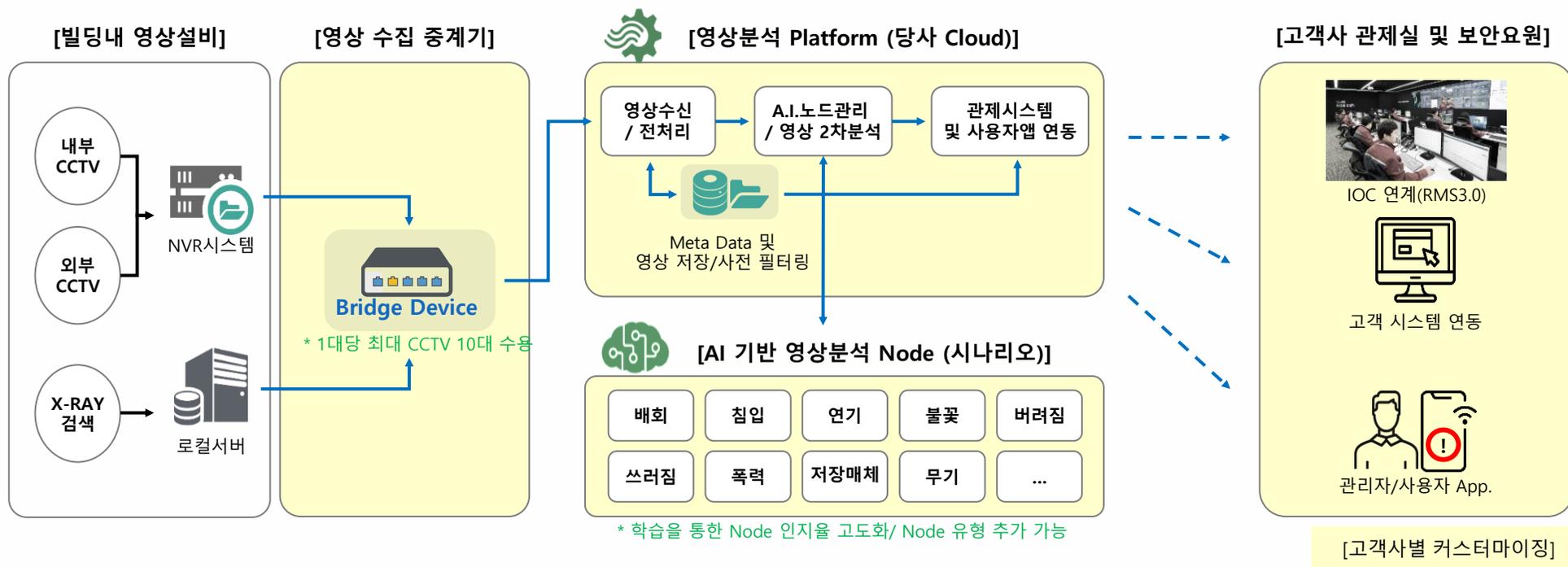
- 기존 CCTV 인프라의 교체 없이 저비용으로 AI 적용 가능
- 침입, 역주행, 배회, 싸움, 쓰러짐, 유기, 화재, 시설물파손 등 다양한 빌딩경비용 AI노드
- 빌딩 경비업무 및 보안업무 보조 / 대체
- 실시간 영상분석 및 이벤트 알람
- 관제센터 연계용 API를 통한 기존 방재실에서의 통합 모니터링
- 클라우드 기반의 AI노드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AI기술 공유 및 재판매 플랫폼 운영



3-2 빌딩 경비 및 보안 분야 적용 모델

분산형 AI기반 영상 데이터 처리 사업

A.I.기반의 영상분석 솔루션은 빌딩의 CCTV 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사건이나 행위를 인지하고 알림을 줄 수 있으며, 기존 CCTV시스템에 대한 교체 없이 영상수집중계기만을 추가하여 클라우드서비스와 연결시킴으로서 초기 도입비용 및 운영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고, 현장의 경비인력 절감 및 관제의 수준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국내) S&I 강서사옥 및 LG트윈빌딩 적용 예정
- (해외) Foxconn 대만공장 적용 예정

NICE Alliance Announces Key Specifications to Bring the Next Generation of Smart Cameras to Market

Industry Leading Network of Intelligent Camera Ecosystem (NICE) Alliance unveils its V0.9 specification and features for public review in advance of the final version

March 28, 2019 01:00 PM Eastern Daylight Time

PALO ALTO, Calif.--(BUSINESS WIRE)--Last year, leading consumer electronics manufacturers and brands Foxconn, Nikon, Scenera, Sony Semiconductor Solutions and Wistron collaborated to formally create an innovative ecosystem standard for smart camera markets with the aim to provide an open data sharing platform based on video/image and AI to enhance the synergistic effect of multi-brand, multi-camera, and multi-service/app. Since the consortium's inception, Allion, Augentix, Mobilicom and **TnM Tech have joined NICE alliance as contributors.** After a year of collaboration and joint development, NICE Alliance today releases the first public review of specifications and detailed features on its blueprint and technology, with a goal to publish a finalized version for formal adoption by the second half of 2019.

"NICE will incorporate challenging concepts of distributed computing and layered virtualization into streaming video to meet broad acceptance by end-multiple industries"

Tweet this

the issues surrounding security, data protection, decentralized architectures, and image sensors. This new process ultimately camera or IoT devices and image sensors

With the massive increase of high-resolution large for practical streaming. With the data only carry a small amount of relevant video NICE's edge AI capabilities provides a relevant video information is sent to the

While the need for balancing between time to address the challenge of sharing AI time is to create a standard defining a pipeline computing.

Designed to drive adoption of its ecosystem streams containing an abundance of specification defines a new standard of effective solution, enabling a new class of emerging applications.

Founded on a vision to propel and advance real-time video image analytics to bring forth the next era of smart cameras to the consumer and enterprise

NICE Alliance's Cloud Services to Be Powered by Microsoft Azure

Network of Intelligent Camera Ecosystem (NICE) Alliance publishes V1.0 specification for manufacturing adopters and application developers and chooses Microsoft Azure for the implementation of its cloud services

May 23, 2019 01:00 PM Eastern Daylight Time

PALO ALTO, Calif.--(BUSINESS WIRE)--NICE Alliance has chosen Microsoft Azure to build NICE Cloud Services that will be offered to NICE adopters, 3rd party application and service developers, and end-users. The implementation of NICE Cloud Services will incorporate **Microsoft's Azure Media Services, Azure Storage, Azure Cognitive Services, Azure IoT, and many other Azure services.**

"Microsoft is pleased that the NICE Alliance has selected the Azure platform as the basis for realizing the NICE vision of offering real time video analytics solutions"

Tweet this

By building NICE Cloud Services on the Azure platform, NICE will be able to simplify the development and adaptation of a real time distributed AI ecosystem consisting of intelligent cameras and intelligent cloud services. "Microsoft is pleased that the NICE Alliance has selected the Azure platform as the basis for realizing the NICE vision of offering real time video analytics solutions," said Jason Hogg, Principal PM Manager of Microsoft Azure. "NICE specifications are looking to tackle challenging concepts associated with digital cameras and the intelligent edge, with a view to simplifying application development and big data analytics associated with a live video data pipeline in multiple industries. Azure Media Services provides the ideal platform for NICE to build an implementation of that pipeline."

Industry leading consumer electronics manufacturers and brands Foxconn, Nikon, Scenera, Sony Semiconductor Solutions and Wistron formed the NICE Alliance, an innovative ecosystem standard for smart camera markets, to provide an open data sharing platform based on video/image and AI to enhance the synergistic effect of multi-brand, multi-camera and multi-service/apps. NICE Alliance believes that its specification will enable entire new classes of video applications including those where private media never leave the sensor, providing enhanced privacy and security

"Microsoft is widely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and largest cloud providers in the world," said David Lee, CEO of Scenera, Inc. "Azure will provide a robust platform for the development of NICE Cloud Services, which is crucial to enable the accelerated adoption of NICE compliance cameras and 3rd party apps and services to integrate IP cameras and IoT devices, aiming to transform the smart camera market."

[ET단상]영화 분노의 질주 속 '신의 눈'의 현실화

발행일 : 2019.05.08

f t e ★ 가 가

[AD] [DS&G] 대규모 GPU Farm 구축을 위한, 슈퍼마이크로 16x GPU 리얼타임 솔루션

몇 년 전 '분노의 질주'라는 영화에서 '신의 눈'이라는 프로그램이 등장했다. 세계의 CCTV(CC)TV를 해킹하는 프로그램으로, 30분 안에 무엇을 원하는 그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영화 속 상상은 과학 발전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해 폭스콘, 니콘, 소니 반도체, 위스트론 등 글로벌 기업과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벤처기업 세네라는 자체 대스마트 카메라 표준 규격을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AI) 카메라 환경을 위한 NICE라는 글로벌 표준화 단체를 만들었다.

NICE는 실시간으로 비디오 분석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술 표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설립됐다. 이 표준안은 센서, 카메라 모듈, 클라우드 등 주요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다. 주변장치에서 이미지를 정렬하고 관련된 비디오 정보만을 클라우드로 전송하는, 효율적이며 실질적인 솔루션이다. 클라우드 기반의 비디오 분석 시를 통해 영화에 등장한 '신의 눈'이 현실화될 수 있다.

카메라에서 생성된 모든 데이터 기반으로 비디오를 실시간 분석하기에는 데이터 양, 통신 대역폭 문제, 서버 부하 등으로 인해 아직은 불가능하다. 이의 해결 방안으로 카메라에서 선 처리된 필요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AI에서 처리가 가능하기 위한 표준을 NICE에서 만들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런 표준을 통해 카메라가 지능을 갖춘 시대가 될 것이다. 현재까지 연구개발(R&D)된 세부 규격 V0.9는 표준화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NICE를 통해 지능형 카메라 업계에는 새로운 트렌드가 만들어질 것이다. AI 기반 비디오 분석은 클라우드에서 급속도로 고도화 및 발전되고 있다. NICE 스펙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어떠한 산업의 표준화에서도 다루지 못한 새로운 방식의 계층 제어에 대해 정의함으로써 센서, 카메라, 클라우드 등에 AI 컴퓨팅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앱)과 서비스가 센서 이미지를 캡처할 수 있게 하고, 매우 짧은 지연 시간만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용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한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최근 1년은 과거 수십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런 변화에서 시장을 선도하지 못하고 따라가기만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일 것이다. 예전에는 많은 기술이 소수의 집단에만 한정돼 있었지만 최근에는 기술이 없어서 트렌드를 선도할 수 없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NICE에 관여하고 있는 회사는 지난해 12월 전략 제휴를 체결해 후원자로 참여하고 있는 티엔엠테크가 유일하다. NICE의 시장 확장을 위한 릴리즈 캠페인을 담당하고 있다. NICE 서비스를 한국에서 상용화하기 위한 코어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후에는 NICE 표준안을 적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벤처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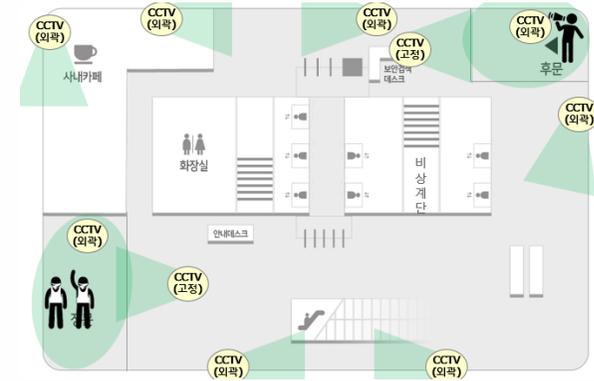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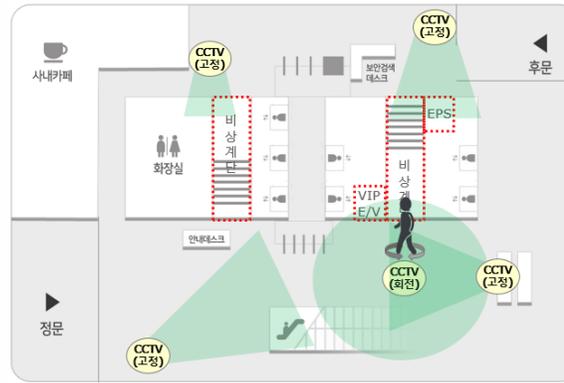
NICE도 실리콘밸리의 작은 벤처기업에서 시작됐다. 내가 실리콘밸리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각의 출발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이다.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아이템을 생각하고, 그것이 현실화 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

물론 많은 것에서 기반이 다를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도전이 필요한 시기다.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패스트 팔로워는 결국 뒤쳐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황의석 티엔엠테크 대표 ushwang@tnmtech.com

3-4 상용화 실적

■ 빌딩 CCTV AI 감시시스템 지능화 POC 구축 (S**社 강서사옥) 빌딩 내·외곽 배회/침입/싸움/넘어짐/방화/유기 등 실시간 감시



- 서울 G***빌딩 CCTV AI 감시시스템 구축 (2021.03)
- 목동**** 아파트 CCTV AI 감시시스템 구축 (2021.04)
- 서울 L***타워 CCTV AI 감시시스템 구축 (2021.05)
- L*** 마포빌딩 CCTV AI 감시시스템 구축 (2021.06)
- 강남 G****타워 CCTV AI 감시시스템 구축 (2021.07)
- 교****화관 CCTV AI 감시시스템 구축 (2021.09)
- L*****파크 CCTV AI 감시시스템 구축 (202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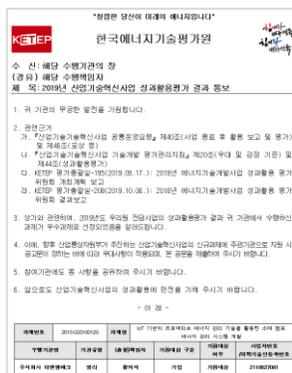
사업소개

1. IoT기반 에너지 관제 솔루션
2. 전력산업용 IT 플랫폼 개발 사업
3. 분산형 AI 기반 영상 분석 사업
- 4. 정부과제 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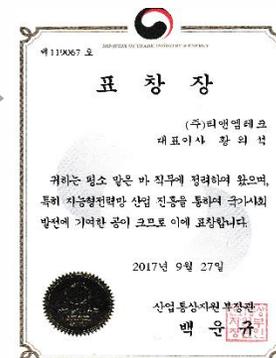
4-1 정부 R&D과제 수행 실적 (에너지 분야)

국가 R&D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및 기술 혁신과, 개발결과 실증 및 사업화를 통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관리기관/사업명	과제명	과제기간	역할
정보통신진흥원(NIPA) /민간지능정보서비스사업	영상분석 AI 기반 X-ray보안검색대 저장매체 탐지기술 개발	2021.06~ 2022.12	주관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열공급망 수용가 빅데이터 기반 에너지관리기술개발	2021.05~ 2024.04	주관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압형 HVDC용 전력기기 감시진단 기술개발(실증)	2017.11~ 2022.02	참여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안전기술개발사업	변압기 유증가스 진단을 위한 기존대비 95%이상 가격절감, 사 이즈 80%이상 축소된 반도체 5종 가스센서 및 진단 IED 개발	2017.12~2020.05	주관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기술개발사업	IoT 기반의 프로액티브 에너지 관리 기술을 활용한 소매 점포 에너지 관리 시스템 개발	2015.06~2017.05	주관기관



2017년 위 R&D과제 상용화 성과 인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2019년 산업기술혁신사업 성과활용평가 우수과제 선정
→ 향후 3년간 가점 부여

Thank you

